



2019년 8월 25일(제943호) 연중 제21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불편한 삶”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서 구원 받을 사람이 많을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힘쓰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은 편하고 좁은 문은 불편합니다. 좁은 문이란 어떤 사람과 관계하기 위해서 스스로 불편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에 혼자 살다가 결혼하면 그 집에 둘이 살아야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집에 여럿이 살아야 합니다. 넓게 살기를 원하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즉 좁은 문이란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싫어도 선택해야 하는 희생의 문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관계 하면서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실제로는 그 사람을 자신 안에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성체를 영하면서도 나의 삶에 변화가 없고 그 분이 원하는 삶,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분을 나 몰라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의 뜻과 내 뜻 앞에 서서 어떤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 마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 마음에 들어가는 방법은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당신들의 불편함으로 우리 마음에 사시게 되는 것처럼, 그분 마음에도 우리 이름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해 그분 마음에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효인(요셉) 신부  
철성(7시몬)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이사 66,18-21

**회 답 송**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제 2 독 시** 히브 12,5-7.11-13

**복음 본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복 음** 루카 13,22-30

**영 성 제 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윤집혜 이기타



성인명: 윤집혜 이기타 (尹占惠 Agatha)

신분: 양빈, 동정 순교자

활동연도: ?-1801년

윤집혜(尹占惠) 아가타는 1778년경 경기도에서 태어나 양근의 한감개(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에서 살았으며, 일찍이 어머니 이씨(李氏)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1795년에 순교한 윤유일 바오로는 그의 사촌 오빠이고, 1801년에 순교한 윤운혜 루치아는 그의 동생이다.

윤 아가타는 일찍부터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려고 동정 생활을 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풍속에서는 처녀가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산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이에 그녀는 몰래 집을 떠날 결심을 하고는, 어머니가 마련해 둔 혼수 옷감으로 남자 옷을 지어 숨겨 둔 뒤에 기회를 엿보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어느 날 남장을 하고 사촌 오빠 윤 바오로의 집으로 가서 숨었다. 얼마 후 윤 아가타는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가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았지만 꾀꾀하게 참아 내었다.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1795년에 입국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윤 아가타는, 어머니와 함께 한양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과부처럼 행세하며 동정을 지켜나갔으며, 2년 뒤에 주 야고보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던 가운데 어머니가 사망하자, 윤 아가타는 여회장 강완숙 골룸바의 집으로 가서 함께 생활하였다. 또 주 야고보 신부의 명에 따라 동정녀 공동체를 만들고, 그 회장으로 임명되어 다른 동정녀들을 가르쳤다. 이후, 그녀는 교리의 가르침을 엄격히 지키면서 극기와 성경 읽기, 그리고 묵상에 열중하여 다른 신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 연도를 자주 바쳤으며, 아가타 성녀처럼 순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였다.

1801년의 신유박해 때, 윤 아가타는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어 포도청으로 압송되었고, 이후 포도청과 형조에서 갖가지 형벌을 받았다. 그렇지만 그녀는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밀고와 배교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박해자들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그녀의 고향인 양근으로 압송하여 처형하게 함으로써 그곳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윤 아가타는 양근으로 이송되어 그곳 감옥에 갇혔다. 당시 그 감옥에는 여자 교우 한 명이 함께 갇혀 있었는데, 뒷날 그녀는 윤 아가타에 대해 증언하기를 “아가타는 말하는 것이나 음식을 먹는 것이 사형을 앞둔 사람 같지 않고, 태연자약하여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 같았다.”고 전하였다.

윤 아가타는 1801년 7월 4일(음력 5월 24일)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순교 당시 그녀의 목에서 흐른 피가 우윳빛이 나는 흰색이었다고 한다.

### 복 음 록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누구 닮은 녀석



실속 없고  
하는 일 어설프면서  
겉멋은 들어  
차려입은 꼴이  
꼭 누구랑  
닮았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좋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오늘을 살고 싶습니다.

성화이야기

바벨탑



이미지 브뤼겔, 1563년경 제작  
나무 패널 위 유화, 114 × 155cm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오스트리아

오늘 제1독서의 시작 구절이다: “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러 오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바벨탑을 지으려는 시도를 인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한 처음에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미술사학자는 영화나 TV가 없던 시절에 회화가 얼마나 동시대인들의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잡았을지 잘 보여주는 작품의 예로 이 그림을 들기도 했다. 그림의 중앙에 거대한 규모의 탑이 보이는데 인부들은 재미처럼 보이고, 오른쪽 바닷가의 성도 성냥갑처럼 보이며 맨 윗부분은 구름에 가려져 있을 정도다. 왼쪽 하단에 이 건물을 총지휘하는 듯 보이는 위풍당당한 왕과 신하들, 돌을 만지는 석공들 그리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인부들이 보인다.

우리는 모두 이 탑의 운명을 알고 있다. 하느님이 인간의 언어를 혼드시어 이 탑은 완성되지 못할 것이고, 곧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치 이러한 탑의 운명을 예고하듯이 이 거대한 건물도 왼쪽으로 다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고, 모든 인부들이 열심히 짓는 동시에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마치 흘러내리는 듯, 무너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또한 이 건물 왼쪽 뒤로 보이는 중세시대의 마을은 건물이 서서히 기울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위태로움도 느껴진다.

이 탑은 보는 이의 시선과 마음을 꼭 쥐고 잡아, 놓아주지 않을 것만 같은 강력한 힘을 지녔다. 마치 세속적인 욕심이 우리를 현혹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시사하듯이 말이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1주일: 성비인네 이승남 신부

◆ 교구장 동정

- 성레오(특전사) 사목방문

때: 8월 25일(주일)

- 국장회의

때·곳: 8월 27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철벽(23사단) 성당 신임신부 방문

때: 8월 29일(목)

“모든 이를 심기는 삶” - “네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